

##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교육부 광고
  1. 10 월 28 일 토요일 6:00pm 세광교회 annual Hallelujah Night 행사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많은 참석 바라며 주위 친구들에게도 알려 많은 학생들이 함께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2. 교육부에서 Canned Food Drive 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 년 마무리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 주일예배 찬양팀 모집합니다. : 리더, 보컬, 악기, 악보
- 오늘과 다음 주일(29 일) Flu Shot 접종합니다.
- 심방 일정표를 친교실 벽에 걸어놓았습니다.

2017 년 10 월 안내 : 전 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 김 은영 집사 / 시편 1 편

이번 주 친교 : 이 현주 집사 / 강 승연 자매

다음 주 친교 : 백 혜옥 집사 / 하 영미 집사

## 예배안내

- 주일예배 :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유년부) / 2 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일 새벽기도 :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 구역별

제 17 권 43 호

2017 년 10 월 22 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 Edwin Kim

유년부 간사 : 안정자 / 지휘자 : 임대영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 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에배순서**

2017 년 10 월 22 일 인도: 이 민영 목사

\*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 (Hymn) 550 장(통 248 장) 다함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대표기도(Invocation) 시편(Psalms) 99 편 김 민아 집사

찬양(Choir) "주님 품에"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대하 20:1-30 인도자

설교 (Sermon)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민영 목사

\* 찬송 (Hymn) 90 장(통 98 장) 다함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 축도 (Benediction) 이 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솔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2017. 10. 15. 주일 설교 요약**

**하나님이 사랑하신 왕 (왕상 3:3-15; 4:25-30; 11:4-5, 9-13)**

솔로몬의 치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혜택이 가장 풍성한 때였습니다. 은이 보석 취급을 받지 못할만큼 부요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으로 시작해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마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혜택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태어났을 때부터, 치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조상을 공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약 가운데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혜택”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며 그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혜택은 언약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사랑으로 시작하여 버림받음으로 끝난 것은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혜택의 흔적인 부와 권세는 여전했지만 언약에서는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이방신을 좇는 데로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을 뿐 아니라 백성들이 평강을 잃었습니다. 4 장에서는 솔로몬의 부귀와 권세가 나라의 평강으로 이어졌는데, 9 장에 가면 부와 권세는 여전하지만 평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물을 세우고 부를 쌓기 위해 노역이 시작되고 불만이 쌓여갑니다.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혜택으로 주신 부와 능력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 복음이 진보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 이웃이 행복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참된 혜택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혜택은 헛된 그림자요 시험거리에 불과합니다.

뭇가 문제였을까요? 듣는 마음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혜택을 주신 것은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마음, 그 신뢰와 겸손을 잃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이방여인들의 유혹이 더 강해졌습니다. 삼천 잠언을 썼지만 자기 생각으로 말만 많이 했지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건물 짓는데, 나라를 튼튼히 하는데 정신이 팔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마음도 잃은 것 같습니다. 노역에 시달리고 백성의 탄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자기 생각이 앞서려 할 때에도, 범죠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과 부끄러움을 덮고 하나님 앞에 앉아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혜택은 하나님이 언약하신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 혜택은 우리의 것이 되고 의미있으며 영원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부와 권세는 그 혜택의 흔적일 뿐입니다.

세상의 혜택을 좇다가 하나님을 잊지 마시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혜택에 팔아버리지 마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이웃을 돌아보고 헤아리는 마음을 길러줍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